

## 고산대의 식물

### 산림한계선을 뛰어넘어 번성하는 식물

미나미 알프스 고산대(해발 2,700m 이상)에는 다양한 야생 식물종들이 서식합니다. 기타다케산의 산등성이에 있는 산림한계선 위쪽과 아라카와 삼산으로 알려진 세 개 산에서 꽃이 다투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고산초원은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경치를 자랑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. 미나미 알프스 국립공원의 고산초원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꽃은 노란 꽃잎의 애기금매화(*Trollius japonicus*)와 하얀 꽃잎의 바람꽃(*Anemone narcissiflora*)입니다.

등산가들이 눈여겨볼 꽃들에는 짙은 노란색의 기타다케미나리아재비(*Ranunculus kitadakeanus*), 좁양지꽃(*Potentilla matsumurae*), 모두 하얀색 꽃인 북악초(*Callianthemum hondoense*), 아이브라이트(*Euphrasia*), 담자리꽃나무(*Dryas octopetala*), 분홍색과 보라색 꽃으로는 꽃고비(*Polemonium caeruleum* ssp. *yezoense* var. *nipponicum*), 하쿠산후로(*Geranium yezoense* var. *nipponicum*), 다카네비란지(*Silene keiskei* var. *akaisialpina*) 등이 있습니다.

1990년대 후반부터 고산초원의 꽃들은 봄과 여름철에 먹이를 찾아 고산대로 올라오는 꽃사슴(*Cervus nippon*) 때문에 개체수 감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.